

# ‘시대의 등불’ 장준하, 135점 판화로 되살아나다



9월2일까지 은암미술관 이동환 전 ... 수기 ‘돌베개’로 작업 판화 원판·드로잉 전시, 현장 시연도 ... 13일 작가와의 대화

지난해 8월 서울 아트비트갤러리. 전시장을 찾은 80대 할머니 두 분이 작품 앞을 떠날 줄 몰랐다. 관람 후 두 사람은 작가에게 10만원을 건넸다. 전시회에 맞춰 발간한 책의 정가는 2만원. 책값을 넘는 액수에 작가가 “전시장에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책을 그냥 드리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 분은 우리 세대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여대생 시절 ‘사상계’를 읽고 그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동환(52) 작가의 개인전 ‘칼로 새긴 장준하’전의 주인공은 고(故) 장준하(1918-1975) 선생이었다. 작가는 장준하의 자전적 수기 ‘돌베개’의 내용을 연작 판화로 풀어냈다. ‘돌베개’는 영원한 광복군이자 시대의 ‘등불’이었던 장준하가 1944년 일본군을 탈출, 임시정부 광복군에 투신하기까지 6000리 대장정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이동환 작가가 광주에서 초대전 ‘가슴에 품은 돌베개’ 전(9월2일까지 은암미술관)을 열고 있다. 장흥 출신으로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후 서울에서 활동중인 이 작가가 오랜만에 광주에서 여는 전시다.

역사를 부장하는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창인 요즘, ‘뭉툰 조상이 되지 말자’는 부친의 말을 늘 마음에 새겼다는 장준하 선생의 삶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많은 이들이 묵직하고 울림 있는 이번 전시회에 꼭 들러 찬찬히 곱씹으며 작품을 관람하면 좋을 것 같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임시정부 각료들 모습을 담은 대형 판화의 원판으로, 이 전시의 ‘무게’가 단번에 느껴진다. 이 작가는 ‘돌베개’의 내용을 135점

의 목판화 작품으로 풀어냈다. 이 중 8장은 박정희 정권에 항거하는 모습과 의문사 등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도통 글이 들어오지 않던 2016년 1월, 우연히 들른 동네 서점에서 그는 ‘돌베개’를 접했다.

“예전부터 읽어보아야 생각만 했지 미뤄두었던 책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났어요. 선생이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하며 진흙밭에서 벌레처럼 뒹구는 장면이나 죽음을 넘나드는 술한 고난 후 광복군의 거처에 도착해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원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접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놓인, 낡은 대로 낡은 책 ‘돌베개’는 그가 술하게 읽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책에서 받았던 감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보자 싶었다. 처음에는 30점 정도 작업할 생각이었으나, 마음에 남는 장면장면을 떠올리다 보니 점점 늘어나게 됐고 2년 8개월 동안 작업이 이어졌다.

“매장면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영화감독이 카메라 각도를 달리하고 인물속으로 근접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작업하면 작가로서 성취감과 있고 재미있겠다 싶었죠. 단순히 기록과 느낌으로 장준하의 일대기를 그리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술적 성취도 얻고 싶었습니다. 모든 작품을 ‘세로’로 작업한 것 역시 스스로 이회영을 작품 소재로 삼은 그는 평전 대신 ‘아내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회영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어서’ 이은숙 여사의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西間島始終記)’를 텍스트로 정했다. 그는 앞으로 ‘목판화로 역사를 기록하고 한국화로 고민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30일에는 목판화 체험이 진행된다. 전시 초대 7일 오후 5시. 문의 062-226-6677.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의 공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목판화 원판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숙연한 마음이 든다.

“이처럼 위대한 책, 위대한 인물을 만난 게 저로서는 행운입니다. 장준하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행동주의자’였다는 점이에요. 고민을 하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제가 닦고 싶은 인간상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우리 아이들도 장준하를 잘 모르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장준하를 알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 없이 행복하죠.”

서울전은 마침 장준하 탄신 100년 행사와 겹쳐 주목을 받았고 그의 판화 작품과 언론인 이동권씨가 글을 써 ‘칼로 새긴 장준하’(민중의 소리 간)를 펴내기도 했다.

광주전에서는 ‘드로잉’으로 해석한 장준하의 삶을 만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판화가 일대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했다면 72점의 드로잉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해석이 담긴 ‘장준하’를 풀어내고 싶었고 아크릴, 유화물감, 한국화 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했다.

초대전 동안 이 작가는 전시장에서 목판화 작업을 진행한다. 자작나무 판에 작업하는 대작에는 8·15, 4·19, 5·18 등 한국현대사의 장면과 장준하가 함께 담길 예정이다.

최근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5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한 이 작가는 잊혀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아나키스트 이회영을 작품 소재로 삼은 그는 평전 대신 ‘아내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회영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어서’ 이은숙 여사의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西間島始終記)’를 텍스트로 정했다. 그는 앞으로 ‘목판화로 역사를 기록하고 한국화로 고민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30일에는 목판화 체험이 진행된다. 전시 초대 7일 오후 5시. 문의 062-226-6677.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장준하



임시정부 각료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시영 작가가 2016 ASEM 문화장관회의 때 선보인 작품.

## ‘빛의 교향곡’

〈광주문화재단 제공〉

### 미디어파사드 융복합 공연...10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광주FINA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해 기획한 미디어파사드 융복합 공연 ‘빛의 교향곡’이 오는 10일 오후 8시 전통문화관에서 펼쳐진다.

한국의 사계(四季)를 재해석한 미디어 파사드에 춤과 음악, 아프리카 타악이 하모니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의 챔베 공연은 평화를 상징하는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챔베를 관객과 함께 연주하는 관객참여형 퍼포먼

스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이 전통문화관에 있는 한국건물인 서석당을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인다.

진시영 작가는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기법을 활용, 빛과 퍼포먼스를 주제로 작업하고 기획하는 예술가다.

2012년 제1회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광명동굴 ‘빛의 연대기’, ‘빛의 페스티벌’, 도갑사 ‘월인천강’, 2019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의 미디어파사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전통문화관은 이번 공연과 더불어 오는 18일까지 ‘전통문화관 야간개장-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전통미를 더하다’라는 주제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통 등(燈)·부채·옹기·백자·분경·공예품의 설치미술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전통부채 만들기 및 전통차 마시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10일 오후 7시부터는 솟대문에서 나빌레라 예술단의 한국전통 춤·소리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32-215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IPALG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